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그들의 독서 취미가 참 고맙다

김종광
소설가

유유상종이라고, 청소년 때부터 1년에 50권 이상 기본으로 읽는 사람을 되우 많이 만났다. 1년에 300권 이상 읽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만났다. 40대 들어 비문학인과 자주 어울리다 보니, 평생 살면서 100권만 읽었어도 책 많이 읽는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 살 때부터 읽었다 쳐서 1년에 두세 권 꼴. 한국인 연간 평균 독서량의 두 배 넘는 수치니 많이 읽은 사람이 분명하다.

고1 아들에게 물었다. 책 읽기 좋아하는 친구 없니? 있으면 아빠 책 한 권 선물해 주고 싶어.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 명도 없다고. 실은 요새 아이들만 안 읽는 게 아니었다. 언제나 그랬다. 일제강점기에도, 보릿고개 시절에도, 산업화 시대에도, 새 천 년에도, 책 읽는 학생은 반에 한두 명이었다. 묘한 일이다. 선생님과 부모님과 그 밖의 멘토 어른이 삼위일체가 되어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책을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인생 성공한다, 그렇게 세뇌 교육하듯 해도 청소년은 읽지 않았다. 어른이 돼서도 읽지 않았다. 독서광은 책 읽다가 미쳐 버린 돈키호테처럼 별종이며, 1년에 한두 권 읽는 이가 보통 사람 혹은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인류에게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무서운 말씀을 남긴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책을 읽어야만 하는 까닭이 허다했다. 마찬가지로 비독서인은 아무리 해도 책을 읽을 수 없거나 읽기 싫은 까닭이 허다했다.

따져 보면 독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어머니가 자주 쓰는 말인데 '머리 쓰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보고 듣는 것과 달리 읽는다는 것은 두뇌를 심하게 써야 한다. 게다가 재미없기 십상이다. 사람마다 재미가 다르고 감동이 다를 텐데, 늘 재미있고 감동적인 책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1년에 두어 권 읽는다면 둘 다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1년에 열 권 읽는다면 그중에 재미없는 책도 여럿일 테다. 1년에 100권을 읽는다는 것은 재미없는 책을 70권 넘게 읽는다는 의미다.

게다가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한국은 특유의 입시 문학으로 독서를 끔찍이 고통스러운 행위로 자리매김해 버렸다. 초중고의 진정한 국어·문학 교육은, 사회 구성원이 평생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인 독서 기초 훈련으로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맛보는 스스로의 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글쓰기를 통해 자기의 견해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타자와 소통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교과서나 참고서에 보면 내 견해보다 훨씬 훌륭한 목표와 목적으로 도배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저 문제 풀이 연습일 뿐이다.

다 그만두고 왜 그토록 괴롭게 읽어야 한단 말인가? 의무적인 독후감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그저 숙제일 뿐이다. 책 읽기 하면, 먹음직한 과일을 눈앞에 둔 듯 설렘이 앞서야 하는데, 주제 찾고 의도 파악하고, 수사법 따지고 수행 평가 과제 해야 하고, 엄청난 숙제가 바윗덩이처럼 굴러오는 듯한데, 읽고 싶겠는가. 골치만 아프고 재미도 없는 일은 하기가 싫은 법이고, 누가 어떤 식으로 강력 코치를 해 주거나 숙제를 덧붙여 주면 더욱 하기 싫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스무 살이 되면 책을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느 세대에게나 독서인은 딱 그만큼 존재한다는 것이다. 내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 명도 못 만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학 년에 세 명은 분명히 '독서가 취미 혹은 특기'라고 할 만한 친구가 있을 테다. 책 읽는 것밖에 할 일이 없을 때 책을 안 읽는 것보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책 읽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가공할 입시 제도와 만화경 같은 스마트폰과 볼 거 너무 많은 텔레비전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청소년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들은 평생토록 친구들의 몫까지 짊어지고 읽어 나갈 테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국민 연간 평균 독서량 1권 가량을 유지할 테다. 그들의 독서 취미가 참 고맙다.

기 고

광천동 시민아파트, 이대로 사라지는가?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옛 전남도청 앞 작은 천막. 오월의 어머니들이 뜻을 같이하는 지역민들과 함께 옛 전남도청 복원을 외치며 농성에 들어간 지 740여 일이 지났다. 폭염과 비바람에도 한겨울 눈보라에도 노구의 어머니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바위처럼 버텨왔다. 38년전 5·18 최후의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을 목숨과 바꿔 지켜냈던 내 자식들의 숨결과 정신을 온전히 간직하기 위한 어미의 심정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5·18 민주 항쟁도 어느 새 38년이 지났다

5·18의 정신은 한치의 변함이 없는데, 5·18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세월에 흔들리고, 옅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 때가 아닌가 싶다. 현재 5·18의 흔적들 중 온전히 남아 있는 곳은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와 옛 505보안대, 광천동 시민아파트 정도에 불과하다.

상무대 영창은 상무 신도심 개발로 형태만 복원됐고, 광천성당 안 들불야학 터는 도로 개설로 외벽 일부만 남은 상태다. 5·18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마저도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당시 훼손돼 이제 와서야 원형 복원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옛 국군통합병원과 옛 505보안대의 경우, 광주시에서 5·18 사적지로 지정하여 원형 보존을 전제로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 시설과 역사 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그 사정이 녹록지 않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650-7번지에 자리한 시민아파트는 지난 1970년 7월 사용 승인을 받아 준공된 광주 최초의 연립 아파트다.

6·25 피난민들의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광주·전남 최초의 노동 야학인 '들불야학'이 광천동 성당 교리실에서 시민아파트로 옮겨진 이후에는 노동 운동과 5·18 민주 항쟁의 근거지가 됐다.

특히 80년 5월 당시 항쟁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엄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투사회보'가 시민아파트에서 제작됐다.

모든 언로가 통제된 상황에서 투사회보는 5·18의 진상을 알리는 유일한 창구였고, 광주 시민들의 투쟁 의지를 하나로 묶는 구심이었다.

38년 전 그렇게 서슬 퍼런 군부 독재에 맞서 광주 항쟁의 주춧돌을 놓았던 시민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얼마 전 지역의 뜻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5·18 역사 공간인 시민아파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시민아파트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보는 내내 젊은 시절 그 곳에서의 뜨겁고 치열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얼마 남지 않은 5·18 역사 공간으로서 시민아파트가 소중할 수밖에 없으며, 원형 보존에 대한 절박함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시민아파트 원형 보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광천동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첨예하게 맞물린 복잡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다.

2400여 명의 재개발 조합원들의 재산권 및 주거권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며, 불가능한 일 만도 아니라고 본다. 시민 공동 자산화 방안은 시민아파트 원형 보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 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없어질 위기에 있는 역사적 공간을 시민 공동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간 보존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한 재개발 사업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아파트 원형 보존은 범시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재개발 지구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지방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원형 보존의 당위성을 중앙 정부에 알리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전문가와 5·18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시민아파트에서 이뤄졌던 활동들에 대한 뒷이야기들을 발굴하여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승화시킨다면 더욱 좋겠다.

청년 강학들의 올곧은 신념은 이 땅에 불의한 정치 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씨앗이 돼 왔다. 40년 전 그 자리에 있던 야학당의 불은 꺼졌지만, 그 혼불만은 영원히 빛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남도청 건물처럼 허물었다 복원하는 우를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세월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과거의 한 점이 된다. 미래 이 자리에 서 있을 세대들이 지금의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의 몫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시민아파트가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종교칼럼

일상의 반란

중현
화순 용현사 주지스님

핸드폰을 새로 장만했다. 나름 기종이나 요금제 상품 등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했다. 기계는 해외 직구로 구입하고, 통신사며 요금제는 인터넷에서 알뜰폰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핸드폰을 주문하고 내 손에 받기까지 3주. 여기까지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핸드폰이 내 손에 들어온 후부터 다시는 기억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왔다. 꼬일 대로 꼬인 일련의 과정은 모두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전화 불통 상태로 이틀을 지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 와중에 번개를 맞아 인터넷도 불통이 되어 버렸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래저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러나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었다. 이미 벌어진 일. 일상의 반란이었다. 우렁각시처럼 아무런 존재감 없이 나를 위해 묵묵히 일하던 것이 멈춰버렸다. 당장 전화가 불통된다고 해서 큰일날 것도 아닌데, 몇 번의 터치 만으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던 것이 갑자기 요지부동이니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부드럽게 흘러가던 일상에 예고도 없이 털거덕하고 브레이크가 걸렸다. 순탄한 일상이 엉망이 되었다. 짜증이 스멀스멀 기어올라왔다. 핸드폰이 짜증을 받아줄 리 만무하지만 짜증은 이런저런 사정 같은 건 따지지 않는 법.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이자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일상이란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순종적인 나의 왕국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다. 세상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 이 말은 곧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국의 경계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해질 수록 나의 왕국에 대한 애착은 더 커진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요즘 말로 하자면 '소확행'은 나의 왕국을 자각하고 예찬하는 마음이며, 나의 영토 밖을 쓸데없이 기웃거리지 않고 나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을 돌아볼 때 느끼는 감정이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기계이거나 상품 아니면 상품화된 서비스이다. 핸드폰, 자동차, 세탁기, 텔레비전, 선풍기, 에어컨, 컴퓨터… 이들이 나의 백성들이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같이 사람이 했을 일들을 기계들은 군말 없이 대신해주고 있다. 반세기 전 만해도 잔치를 벌이려면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온종일 부산스럽게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마트에 가서 이미 다 만들어진 상품들을 '사오기만' 하면 된다. 생일잔치를 준비하려면 케익, 촛불, 풍선, 즉석 떡볶이, 초밥, 와인… 이런 것들을 사와서 차리기만 하면 된다. 마트에 팔지 않는 탕수육, 꽃다발 같은 것은 다른 가게에서 사면 된다.

옛사람들과 비교하면 왕이 부럽지 않은 삶이다. 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각종 전자 기기들은 우리들의 삶과 혼연일체가 되었다. 우리들에게 이들은 기계 이상의 존재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다. 요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 살고 있으니 평범하기 짝이 없다. 오랜 시간동안 익숙해져서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땀이자 노동의 결정체이다. 우리는 무수한 이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 없이는 한시도 자신을 유지할 수 없는 허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짜증으로 번지려는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런데 '애초에 미리 신경써야 할 것들을 잘 챙겨 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자,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하는 자조 섞인 한탄이 새나온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책 없이 화부터 내는 것이나,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못난 놈이라고 자신을 깎아 내리는 일이나 외양만 다를 뿐 뿌리는 꼭 같다. '나'라는 놈의 못된 장난이다.

예전 스님들은,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숱한 사람들이 참된 이치를 깨달었건만 너는 어찌 아직도 애욕의 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라며 수시로 자신을 경책하였다.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고 간절하게 당부하신 말씀이다. 원래 주인공은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일상이라는 왕국의 왕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비극의 주인공 역할에 심취하는 것도 실제 주인공인 '나'가 아니라 거짓된 '나'인 셈이다. 중생이 달리 중생이 아니다. 자신에게 속고도 남에게 버럭 화내는 것이 중생이다. 참으로 우습고도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社說

자고 나면 치솟는 '미친 집값' 두고만 볼 건가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봉선동과 수완지구를 중심으로 일부에서 이런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례가 없는 '폭등' 수준이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7억 원 하던 봉선동 아파트가 3개월 만에 12억 원으로 치솟았다. 자고 나면 1~2억 원이 오른다는 말이 과장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기현상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광주만, 그것도 일부 지역만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여유자금과 외부 투기 세력이 빚어 낸 결과라는 원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교육 여건 등이 좋은 곳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는 여유 자금을 가진 수요자가 많은 데다 상대적으로 싼 광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리고 외부 투기 자금이 들어와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됐건 이 같은 아파트 가격 이상 급등은 서민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까지 포기하는 일이 수도권이 아닌 광주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선 유일하게 광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가격 급등은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없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지금처럼 중앙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광주시와 구청은 손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이 반복 될 수밖에 없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만 보더라도 수도권과 세종시 등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광주 지역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자체가 나서 가격 급등 지역의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투기 의혹이 있다면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세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지자체에 지역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을 부여해 지역 부동산 시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 비상 속 전남대병원 파업 꼭 해야 하나

호남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인 전남대병원이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과 메르스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전남대병원 측은 "지난 7월부터 11차례의 교섭 등 노사가 장기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12일부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은 어떤 경우라도 보장받아야 하며, 비난받아서도 안 된다. 다만 전남대병원 노조의 이번 파업은 협상 결렬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적절치 않다.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해 보건 당국과 의료기관들이 비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추석 연휴에는 지정 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료 기관이 휴진하는 탓에 파업이 조금만 길어져도 전남대병원의 추석 연휴 지역 비상 진료 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욱이 전남대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 입원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보유한 감염 관련 핵심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조선대병원이 협상안을 타결시켜 파업을 면하고, 광주기독병원이 신속히 파업을 마무리한 것에 비춰 보면 전남대병원 노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대비를 해도 병원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근무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진료에 크고 작은 차질이 생기는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남대병원 측은 노조의 주장 가운데 간호사 충원에 대해서는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되 병원 경영 상태와 법적 테두리에서 가능한 범위를 제시해 양측이 간극을 좁혔으면 한다.

無等鼓

사형제 논란 20년

사형제 유지와 폐지는 20여 년 동안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사법계 최대 이슈다.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야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同害) 복수법을 적용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사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과 종교계의 생각은 정반대다. 어떤 명분으로도 생명을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지난 1948년 이래 현재까지 모두 1310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종종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으나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집행된 적은 없다.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사형 대기자들은 60여 명이다.

흉악범을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는 당연하지만 재판장들의 고민은 깊다. 인간의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여 억울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판사들은 사형 선고를 고려할 때 인간적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7년 전북 군산지원 오기두 부장판사의 판결문에는 그러한 고민이 배어 있다.

그는 "과연 사형제란 무엇인가라고 자문하면서 잠을 자다가도 가위에 눌려 벌떡벌떡 일어나 잠을 설치는 등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고백했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부녀자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흉악범들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자매 살인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울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는 법구경(法句經)의 '증오는 평화로만 풀 수 있다'는 가르침을 거론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죄인을 심판해 단죄하는 것을 평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며 감형을 요청한 바 있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런 그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그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니, '공권력의 선의'를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